



3면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도민에 대한 예의 아냐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음 3월 20일)

제39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제104회 전북자치도 어린이날 대축제

5일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열린 제104회 어린이날 대축제에 김관영 도지사외 창의체험관을 찾은 아이들이 기념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1위 도민들 선택 흔들리지 않아”

이원택 민주 도지사 후보, 최근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 제기
“민심 반영 아닌 ‘유도’ ... 질문 설계부터 특정 방향 암시”
후보 표기 방식 · 양비론적 질문 · 조사 결과 보도 등 지적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공천을 획득한 이원택 후보가 최근

정치적 논쟁을 동일한 수준으로 회색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방어하기 위한 ‘구하기식 여론조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자체는 민심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직 지사라는 강력한 프리미엄과 질문지 설계상의 유리함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원택 1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도민들이 조사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질적인 판단을 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38%가 ‘지역발전 비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는 점은 전북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미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방식에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실제 질문지에는 정당 구도가 명시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 구도로 서술됐다”며 “조사 데이터와 해석이 따로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데이터를 특정 방향으로 재구성해 여론 흐름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이른바 ‘명태균식 여론조사’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도민을 향해 호소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무소속 출마라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정통성을 흔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사법적 판단마저 부정하는 정치적 행태는 전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6월 3일, 도민 여러분의 한 표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깨끗한 정치,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민간 금융사, 전북에 집결

4대 금융그룹 · 글로벌 금융사 등 연이어 혁신도시에 거점 구축
수도권 편중 금융 구조 분산, 자금 조성 · 운용 · 투자 선순환 기대
도 “지금이 금융중심지 지정 골든타임... 지역 산업 성장 거점 기능”

국내 4대 금융그룹과 블랙록·알리안츠·골드만삭스·페덱스 등 글로벌 금융사가 전북에 잇따라 거점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제3 금융중심지 완성을 위한 공공 금융기관 유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5개 계열사 380여명 규모의 KB금융타운을 조성 중이며 신한금융그룹은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를 출범시켜 300명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5년간 1366,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하나금융그룹은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집약한 원-루프 센터 신설을 각각 발표했다. 4대 그룹 모두가 전북에 실질적 기능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민간 금융 생태계는 사실상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민간 금융사가 전북으로 집결한 핵심 이유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다. 세계 3대 연기금이 전북에 위치해 자산운용사들의 투자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대 금융그룹과 협력 거점 구축을 추진 중이며 지역 산업 연계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전북이 유치 대상으로 주목하는 기관은 한국투자공사(KIC), 9대 공제회,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다. 이들이 국민연금과 함께 전북에 집적되

면, 자금 조성·운용·투자·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분산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이 한 지역에서 공동투자·정보공유·리스크관리 협력체제로 통합될 경우,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는 물론 국가 전체의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작동하는 자산운용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 금융 구조를 분산하는 동시에, 전북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투자 생태계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 연계 효과도 뚜렷하다. KIC가 이전하면 국민연금(NPS)과 국부펀드(KIC)가 실질적으로 협업하는 국내 유일의 자산운용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9대 공제회가 집적되면 공동투자·정보공유 등 공적 자산운용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단순 이전을 넘어 국가 자산운용 체계를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농생명·재생에너지·이차전지·모빌리티 등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전북의 정책금융 수요와 맞물려, 국민연금 투자정책금융-민간투자사로 이어지는 자금 공급 체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진흥청·국가식품클러

스터 등이 밀집한 전북에서 농업금융과 융합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은 금융에 그치지 않고 인근 산업과의 연계까지 내다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9조 원 투자로 속도를 높인 이차전지·모빌리티 산업 농촌진흥청 중심의 농생명 R&D, 원주-새만금의 수소 인프라와 금융 투자 기능이 결합하면 금융·농생명·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복합 산업 생태계 구현이 가능하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금융 가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미 연기금과 민간 금융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은 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이전 최적지로 꼽힌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세계 혜택과 제도적 기반이 확충돼 이전 기관의 정착을 뒷받침하고, 민간 자산운용사의 추가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내통령과 전북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지, 민간의 신뢰가 맞물린 지금이 금융중심지 지정의 골든타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면 전북은 단순한 금융 집적지를 넘어 투자와 생산이 연결되는 지역 산업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다시, 사람이 하늘’

정읍시, 9일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의 구호(슬로건)는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로 정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전 공식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전국 농악경연대회, 청소년 토론대회, 홀(댄스)경연대회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그날의 함성’이 펼쳐진다. 정읍 시민과 지역 음악단 청소년, 문화예술인 등 총 511명이 참여해 1894년 당시 농민군의 기개를 웅장하게 재현한다. 행사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 과거 말목장터를 구현한 구역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대규모 공연도 기다리고 있다. 9일 기념식 직후에는 손태진, 조재직, 먼데이키즈, 경서 등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열린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허각과 신동재의 노래에 이어 정읍시립국악단의 특별 기획 공연 ‘천명’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수군

역사를 배우고
생태와 교감하고
자연을 느끼고 체험을 즐기다

귀천문화
뜨봉샘과 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